



### “상생의 지역사회 풍토를 만들자”

# “분노 보다 화합의 얼굴로 마주 보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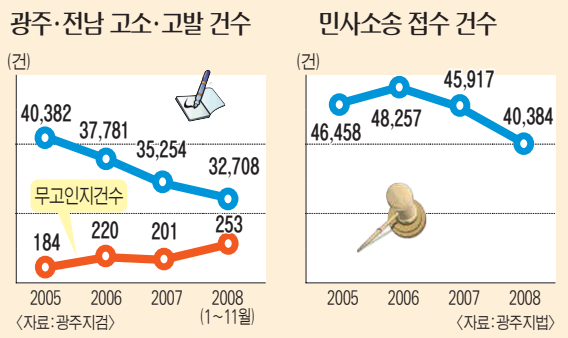
지난해 광주시 북구 동림동 주공아파트(동천마을) 입주인 간의 담장 설치 논란은 광주·전남의 큰 화제거리였다. 임대와 분양 아파트 사이에 설치된 261m에 달하는 담장은 주민 간의 불신을 보여주는 상징물이 됐다. ‘이웃사촌’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갈등의 골 또한 깊었다.

결국, 관할 구청이 나서면서 일부 담장이 철거되고 진정 국면을 보이는 듯했지만, 주민들에게 남은 건 이미 설치된 담장만큼이나 높은 불신뿐이었다.

작은 이기주의에서 시작된 주민 간 다툼은 일부 고소·고발로 이어지기도 했다.

이곳 아파트 입주주민 간의 대립과 반목은 사회 구성원 간의 갈등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 중 하나다. 이 때문에 ‘상생(相生)’이란 단어가 어느 때보다 더 절실한 것으로 보인다.

종교가들로부터 비롯된 ‘상생’이라는 용어는 사실 일상적일 정도로 우리 주변에 자리 잡았다. 상생의 문화·상생의 정치·상생의 종교·상생의 노사, 나아가 상생의 시대를 열자는 주장은 진작부터 제기됐다. ‘상생’을 위해서는 서로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대화와 타협이 필요하다. 하지만, 대화와 타협 보다는 언제부터인가 법이 우선이 돼버렸다.



## “무작정 고소·고발 부터” 70% 이상이 불기소처분 갈등·대립·분노의 에너지 상생의 에너지로 바꿀 때

조언했다.

◇무고는 엄벌=‘막무가내 소송’이 많아지면서 법원과 검찰은 무고와 허위소송 사범들에 대해 잇따라 엄벌에 처하고 있다.

사회적 폐해가 큰 대다 이 과정에서 심각한 인권침해와 사법 불신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광주지검은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접수된 1만8천7건의 고소·고발 사건 가운데 사실이 아닌 일을 거짓으로 꾸미어 해당 기관에 고소·고발한 150건의 무고 사건을 인지해 기소했다. 법원에 무고 사범에 대해서는 엄벌하고 있다.

광주지법은 지난해 70명의 무고 사범에 대해 재판을 했고, 그 결과 ▲실형 10명 ▲집행유예 28명 ▲벌금형 24명 ▲선고유예 1건 ▲무죄 5건 등이었다.

이는 전년(52명) ▲실형 5명 ▲집행유예 32명 ▲벌금형 11명 등에 비해 형량이 높아진 것이다.

◇민사소송도 붓물=민사소송도 붓물을 이루고 있다. 점차 줄어들고는 있지만, 아직도 매년 4만 건 이상의 민사소송이 광주지법에 줄을 잇고 있다.

광주지법에 접수된 민사 본안사건은 ▲2005년 4만6천458건 ▲2006년 4만8천257건 ▲2007년 4만5천917건 ▲2008년 4만3천84건에 이르렀다.

2005년 이후 줄어드는 추세지만, 아직도 4만 건 이상의 법정에서 다툼을 벌이고 있다.

이처럼 불신에서 시작된 구성원 간 갈등은 법정으로 이어지는 것이 다반사이다.

‘상생’은 상대를 인정하고 포용하는 데서부터 출발한다. 상대와 대화하고 타협해야만 가능한 것이다. 하지만, 법정에서 타협하고 대화하고 있는 사례가 더욱 많다.

‘상생’ 없이는 어떤 조직이나 사회도 진정한 활력을 기대할 수가 없다. 따라서 지역민 모두가 분노보다 화합의 얼굴로 서로 마주 보아야 한다.

상생의 자물쇠는 사회 구성원 모두가 화합의 손부터 서로 맞잡을 때 비로소 열린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2009년 새해 지역민 모두가 상생하는 해가 됐으면 한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기고



최인규

한 번의 거짓말을 그럴 듯하게 감추기 위해서는 스무 가지 거짓말을 더해야 한다고 한다. 그런데 이 스무 가지 거짓말을 또 감추려면 몇 번의 거짓말을 더 해야 할까? 자신의 거짓말을 추궁하는 모든 경우의 수를 예상하면서 감히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세상에 완벽범죄가 없듯이, 인간의 불안정한 지능으로는 거짓을 숨기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런데도 우리 사회는 가히 거짓말 공화국이라 불려도 좋은 만큼 사회 곳곳에 거짓이 만연해 있다. 정치인의 거짓말은 국민을 전연시키고, 부모의 거짓말은 자녀에게 학습되면서 마치 요령껏 거짓말을 잘 하는 것이 무슨 처세의 방편인양 그릇 인식되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 ‘거짓말쟁이(liar)’라는 표현은 끔찍한 모욕이다. 미국의 닉슨 대통령은 도청 사건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했다가 자신의 욕성이 녹음된 테이프가 공개되자 대통령직을 사임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가 도청 사건에 관여한 것은 대통령직을 물러날만한

해 동안 접수된 1심 소송사건은 무려 140만 건에 달해 일본의 60만 건보다 훨씬 많았다. 15년 전인 1989년에는, 우리나라가 40만 건, 일본이 31만 건이었는데 오히려 그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인구가 약 330만 명에 불과한 광주, 전남 지역에서도 2007년 한 해 동안 10만 2,000건에 달하는 소송사건이 접수되었다.

가장 악의적인 거짓말이라고 할 무고죄나 위증죄에 대한 통계를 보면 우리의 거짓이 만연해 있다. 정치인의 거짓말은 국민을 전연시키고, 부모의 거짓말은 자녀에게 학습되면서 마치 요령껏 거짓말을 잘 하는 것이 무슨 처세의 방편인양 그릇 인식되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 ‘거짓말쟁이(liar)’라는 표현은 끔찍한 모욕이다. 미국의 닉슨 대통령은 도청 사건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했다가 자신의 욕성이 녹음된 테이프가 공개되자 대통령직을 사임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가 도청 사건에 관여한 것은 대통령직을 물러날만한

## 정직한 사회 건강한 사회

잘못이 아니었는지 모르지만, 그가 한 거짓말은 결코 대통령직을 수행하게 할 수 없는 잘못이라는 것이 미국 국민의 판단이었다.

선진국일수록 정치인이나 공직자의 거짓말은 이처럼 더욱 엄격한 잣대로 판단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실정은 어떤가? 대통령선거를 치를 때마다 반복되는 온갖 비방과 고소, 고발은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자치선거는 물론이고 농촌의 조합장 선거에까지 그대로 답습되고 있다. 심지어 학교의 학생회장 선거조차 대통령선거를 빼 빼왔다고 혀를 치는 사람이 있지 않은가.

정치인이건, 민간인이건 남의 평판을 깎아 내리 이익을 보고자 하는 전략은 필연적으로 거짓과 모함을 수반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거짓과 모함을 토대로 힘을 키워 온 사람들의 영향력이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거짓과 모함이 제대로 밝혀져 처벌되지 않은 채, 그들이 또 다시 같은 자리로 돌아가는 현실을 극복하지 않고는 결코 정직하고 건강한 사회는 세워지지 않는다.

정치인이건, 민간인이건 남의 평판을 깎아 내리 이익을 보고자 하는 전략은 필연적으로 거짓과 모함을 수반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거짓과 모함을 토대로 힘을 키워 온 사람들의 영향력이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거짓과 모함이 제대로 밝혀져 처벌되지 않은 채, 그들이 또 다시 같은 자리로 돌아가는 현실을 극복하지 않고는 결코 정직하고 건강한 사회는 세워지지 않는다.

정치가인건, 민간인이건 남의 평판을 깎아 내리 이익을 보고자 하는 전략은 필연적으로 거짓과 모함을 수반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거짓과 모함을 토대로 힘을 키워 온 사람들의 영향력이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거짓과 모함이 제대로 밝혀져 처벌되지 않은 채, 그들이 또 다시 같은 자리로 돌아가는 현실을 극복하지 않고는 결코 정직하고 건강한 사회는 세워지지 않는다.

그러나 각종 사법지표를 보자. 2004년 우리나라의 인구는 약 4900만 명으로 일본의 40% 수준에 불과함에도, 한

통해 분 단면에 불과하지만, 어쩌면 우리 사회의 적나라한 현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고소하기 좋아하고, 소송하기 좋아하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서슴치 않는, 그래서 남의 고통을 이용해 조금이라도 이익을 더 얻고자 하는 사람이 많다면, 그 사회를 어찌 건강한 사회라고 할 수 있겠는가.

거짓말은 인간의 신뢰를 파괴하고, 사회 전체를 병들게 하는 범죄임에도, 우리는 그것이 가까운 사람에 대한 인정과 의리의 표본이거나, 혹은 사회에서 생존하기 위한 부득이한 전략으로 오해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래서 거짓말을 하고

도 죄의식을 못 느끼고 태연할 것일까? 새해 아침 떠오르는 태양은 모두에게 늘 새로운 용기와 희망을 준다. 부모와 자식이, 교사와 학생이, 상사와 부하가, 그리고 권력자와 국민이, 서로 정직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소통할 때 사회는 건강해지고 발전할 것이다. 신에 대한 경외심으로 영혼의 평화를 얻고, 질병을 치료함으로써 육체의 평화를 얻듯이, 정직하고 진실된 소통을 통해 사회의 평화도 얻어준다고 믿는다. 새해에는 우리 모두 분쟁을 가라앉히고 세상을 화평(和平)케 하는 자(Peacemaker)로 거듭나기를 소망한다.

<광주지법 판사>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동서하나로**

행정지원, 민원지원, 상담지원, 의료지원, 복지지원, 문화지원, 체육지원, 관광지원, 환경지원, 안전지원, 정보지원, 기타지원

동서하나로 센터 519-5119

동서하나로 센터 519-5300